

# 전남도, 외국인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민·관·학 18개 기관 참여 첫 실무협의체서 추진 현황 공유 친화형 의료기관·통번역 지원·결핵 검진·보건교육 등 논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전남도는 농도의 성격상 외국인 노동자와 해외 이주민들의 비율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는 외국인주민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 지원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1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 외국인주민 의료 지원 실무협의체는 지역 기반의 민·관·학 협력을 통한 외국인주민 의료 지원체계 구

축을 위해 구성됐다. 전남도의사회, 전남대, 순천대, 동신대, 동아보건대, 화순전남대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등 대학과 의료기관 등의 18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참여 기관별 외국인주민 의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외국인주민 친화형 의료기관 지정 ▲의료 통번역 지원 ▲외국인 근로자 결핵 검진 ▲외국인주민 보건교육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언어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2025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콜센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다. 콜센터와 연계한 화상상담, 찾아가는 방문 진료,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실무협의체는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협력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외국인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와 산업의 주체이자, 전남도민"이라며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민·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동교에 올린 만세삼창**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을 앞두고 20일 오전 광주 북구 산동교에서 문인 북구청장장과 전문군영주축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어린이집 아동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산동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광주 진입을 막기위해 교전을 벌였던 곳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더현대 광주' 방직공장 부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통과

진출입 불허 구간 확대 등 제시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방직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일 구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안전을 수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광천 사거리에서 개발부지 입구까지 교통 대책을 보완하고, 교통 혼잡에 대비해 진출입 불허 구간을 확대하는 등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가 해당 조건을 반영해 보완책을 제시하고 심의위에서 수용하면 교통

영향평가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앞선 심의에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셋백·Set Back), 광주전 교량 설치 등 7가지 보완책을 요구했으며 휴먼스홀딩스PFV는 상당 부분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재심의가 이뤄졌다.

수정 의결은 완전한 종결은 아니지만, 심의위가 새로 제시한 조건이 이전보다는 가벼워 해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거정책 심의, 재해 영향성 검토를 마쳐 교통영향평가까지 끝내면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 남겨두게

된다.

광주시는 7월 중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이후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인들의 애환이 서린 이 일대에서는 전방·일신방직이 떠나면서 일부 공장 시설을 보존하고 더현대 광주, 300실 규모 특급 호텔, 공동주택 4186세대를 건립하는 등 개발이 추진 중이다.

핵심 시설 중 하나인 더현대 광주는 2027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미식의 도시 홍콩서 '남도음식 쿠킹쇼' 인기

### 유은하 미쉐린 셰프와 한우·전복 활용한 김밥 선보여

전남도가 지난 19일(현지 시간) 홍콩 현지 시 티수퍼 코즈웨이베이에서 남도음식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홍콩 현지 쿠킹쇼는 수협중앙회 홍콩무역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홍콩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와 현지 유명 요리사, 인플루언서 등 50여 명을 초청해 현지 미슐랭 셰프들이 남도음식을 활용해 다국적 요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계에서 유일한 김밥, 비빔밥으로 미쉐린 셰프로 8회 등극한 유은하(Kelly's Cape Bop 대표) 씨는 전남의 한우, 전복, 김을 활용한 남도김밥을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남도 광역브랜드 '녹색한우'를 활용한 김밥 만들기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 셰프가 나주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직접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한우 홍콩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3년간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수출도축장 및 가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홍콩 정부로부터 올해 2월 등록 완료 통보를 받았다. 이

번 쿠킹쇼를 통해 홍콩으로의 첫 직접수출이라는 성과를 달성했고, 이는 녹색 한우의 홍콩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김밥뿐만 아니라 홍콩, 멕시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 셰프가 각각 토스타다, 타코, 중식과 이태리식 퓨전 요리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였다. 토스타다는 곱게 튀겨낸 토르티야 위에 으깬 콩, 과카몰리, 고기 등을 곁들인 라틴아메리카 요리다. 행사 메인 셰프로 참가한 유은하 대표는 "전남의 대표 식재료인 한우와 전복을 활용한 쿠킹쇼를 개최하게 돼 행복하다. 모든 셰프가 항상 고민하는 좋은 재료에 대한 갈망을 전남도에서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홍콩은 아세안,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 마켓이자, 미식의 도시"라며 "홍콩을 시작으로 올해도 케이(K)-푸드 본고장 남도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을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미국 뉴욕에 이어, 5월 중국 충칭시에서 남도음식 홍보를 위한 현지 맞춤형 쿠킹쇼를 개최해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몽골, 미국 등에서 남도음식 알리기 행사 개최를 준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 소득기준 140%까지...총 2만9000명 혜택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소득기준 확대도 56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은 총 2만 9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이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에 청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마을 확대 등 다양한 치매정책을 강화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3년부터 3개년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 치료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대숲맑은 담양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대상

'대숲맑은 담양쌀'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중 대상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20일 고품질 명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 발표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에 품종 혼입과 품위·품질 평가 및 안전성 검사, 식미평가 등을 의뢰한 결과를 평가해 이뤄졌다.

영예의 대상은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로, 식미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품위·품질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으로는 순천 '나누우리' 쌀이 뽑혔고 우수상에는 영암 '달마지쌀', 해남 '땅끝햇살',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강진 '프리미엄호평', 무안 '황토랑쌀', 나주 '왕건이 탐낸쌀', 장성 '아름피 쌀', 곡성 '백세미'가 각각 선정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